

numbers 제 44호



주요 내용

2020. 04.23

1. 한국 여성 가사노동, '부담스럽다' 57%
2. 코로나19 관련 미국 여론 조사 결과 분석

우리는
더 나은 정보가
더 나은 세상을 만든다고
믿습니다

목회데이터연구소 주간리포트

홈페이지 | www.mhdata.or.kr
E-mail | mhdata@mhdata.or.kr
전화 | 02.322.0726

2020 대한민국 트렌드

한국 여성, 가사노동 ‘부담스럽다’ 57%

요즘 청소, 빨래, 설거지 등을 대신 해 주는 가사노동 대행 서비스가 등장하여 주목을 받고 있다. 사실 가사노동 대행 서비스가 낯선 것만은 아니다. ‘식모’, ‘가정부’, ‘파출부’, ‘도우미’ 등의 이름으로 가사노동을 대신 해 주는 서비스는 오래 전부터 있어 왔다. 이런 서비스들이 가사노동 대행 서비스라는 보다 전문적이고 기업적인 형태로 제공된 것은 최근 몇 년 사이에 나타난 일이다.

가사노동 대행 서비스는 노동으로부터 벗어나고자 하는 인간의 노력 중 하나이다. 산업이 고도화되면서 인간의 노동 시간은 짧아졌다. 그리고 남은 시간을 자신을 위해 사용해 왔다.

여성 중 가사노동이 부담스럽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57%나 되고 있다.

노동이 가사노동으로부터 벗어나고자 하는 행위가 가사노동 대행 서비스만 있는 것이 아니다. 온라인 쇼핑, 음식 배달 서비스는 가장 일반화된 가사노동을 줄여주는 행동이다. 최근에 주목 받고 있는 새벽배송도 쇼핑 노동을 최소화하기 위한 서비스이다. 어르신들은 이런 서비스에 대해 언짢을 수 있다. 하지만 미국에서 인스턴트 커피가 나올 때 인스턴트 커피를 가족에게 주는 것은 가정주부로서 결격 사유라고 생각했지만 그 편리성을 맛 본 사람들이 금새 인스턴트 커피를 애용했던 것처럼, 노동에 투입되는 시간과 노력을 줄여서 자신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쓰고자 하는 트렌드는 막을 수 없다.

목회데이터연구소 주간리포트 [넘버즈] 44호는 가사노동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행동들을 살펴 보고 그것이 주는 의미를 되새겨 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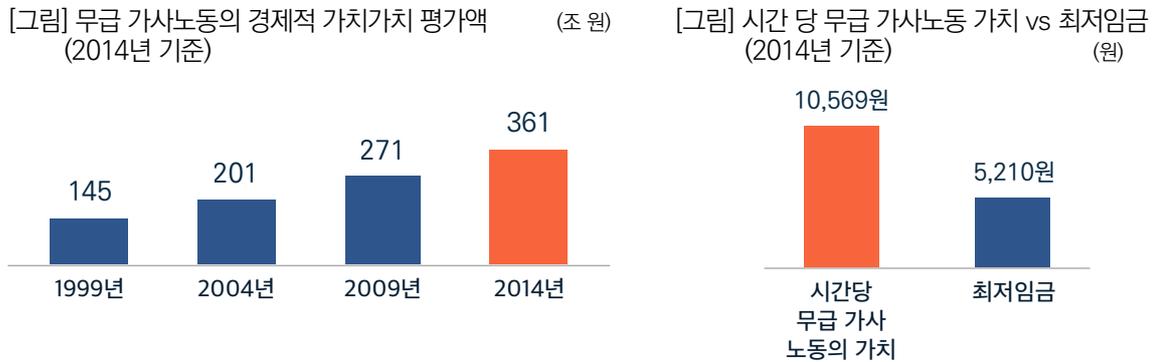
일러두기

- 본 리포트에서 사용한 자료는 저작권법을 준수합니다.
- 본 리포트의 데이터는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정수로 표기하였으므로, 보고서 상에서 표기된 값의 합이 100%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복수 응답 문항의 빈도는 그 합이 100%를 초과할 수 있습니다.

1

무급 가사노동의 가치 ‘돈으로 환산하면 361조 원’(국내 GDP의 24% 차지)

- 통계청 조사 결과(2018.10) 2014년 자료를 바탕으로 추정된 음식 준비와 청소 등 무급 가사노동의 경제적 가치는 361조 원으로 5년 전(271조 원)에 견줘 34% 증가했다. 361조 원은 2014년 국내총생산(GDP)의 24%를 차지할 정도로 큰 규모이다.
- 시간당 가사노동 가치는 2014년 1만 569원으로 당시 최저임금(5210원)의 2배 가까웠다. 2020년의 최저임금이 8590원임을 감안하면 2020년 가치로는 약 17,000원에 해당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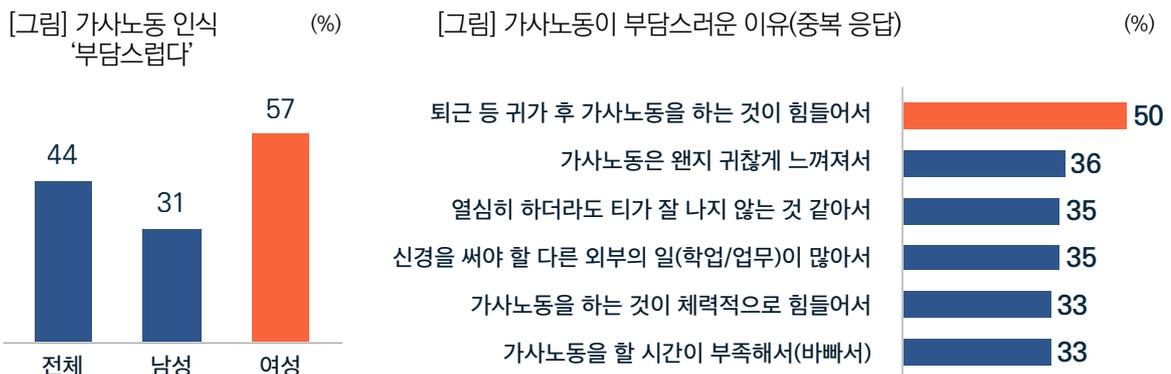


*자료 출처 : 통계청, '1999~2014년 가계 생산 위성계정 개발 결과(무급 노동 가치 평가)' 2018.10.8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28&aid=0002427626>

2

여성, 가사노동 '부담스럽다' 57%

- 가사노동을 경제적 가치로 환산을 하면 GDP의 24.3%를 차지할 정도로 가치있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가사노동이 부담스럽다는 여성이 57%나 되고 있다. 그 이유는 가사노동은 기본적으로 육체적으로 힘든 일이기 때문에(33%) 가사노동을 부담스러워 한다. 그리고 바쁜 현대인들은 가사노동에 전념하기에는 '해야 할 일이 많고'(35%), '시간이 부족하다'(33%). 그러다 보니 '가사노동이 귀찮게 여겨지고'(36%), 특히 '퇴근 등 귀가 후 가사노동을 하는 것이 힘들어서'(50%) 가사노동을 부담스럽게 여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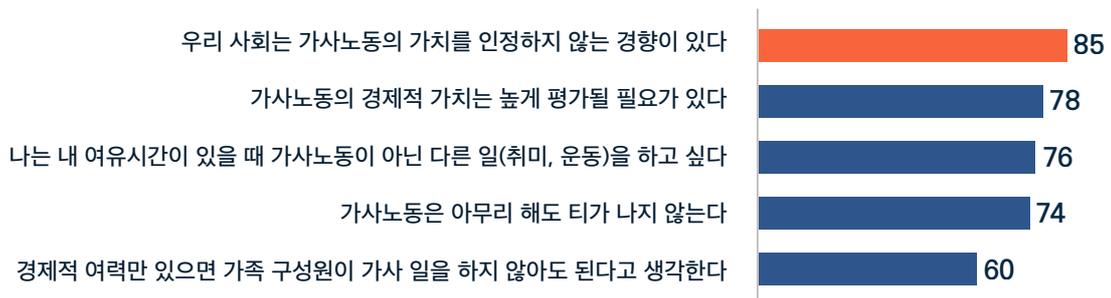


*자료 출처 : 트렌드모니터, '2020 가사노동 및 가사 대행 서비스 관련 인식 조사', 2020.2 (전국 만 19세~59세 남녀 1,000명, 온라인 조사)

● 그래서 '가사노동 사용 시간 대신, 나를 위한 일을 하고 싶다' 76%

- 우리나라 사람들은 가사노동이 매우 가치있는 일이고 힘든 일임에도 불구하고 실제 하는 일에 비해 일을 한 흔적이 잘 남지 않기 때문에 '가사노동은 아무리 해도 잘 티가 나지 않는다'(74%)고 생각한다. 더욱이 '가사 일을 안 해본 사람들이 가사노동을 쉽게 얘기하는 거 같아서'(85%) 속상해 한다. 그래서 '경제적 여력만 있으면 가족 구성원이 가사 일을 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60.4%)하며, 여유 시간을 가사노동에 쏟지 않고 '취미나 운동' 등 자신을 위한 일에 시간을 쏟고 싶어 한다(76%).

[그림] 가사노동에 대한 인식: 긍정률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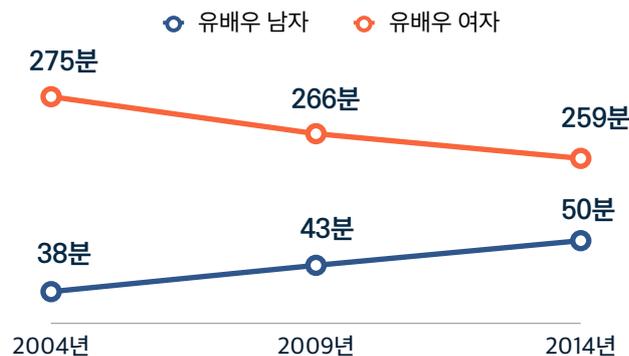
*자료 출처: 트렌드모니터, '2020 가사노동 및 가사 대행 서비스 관련 인식 조사', 2020.2 (전국 만 19세~59세 남녀 1,000명, 온라인 조사)

3

이런 인식의 변화로, 여성의 가사노동 시간 점차 감소 추세!

- 가사노동 시간 외의 시간을 확보해서 자신을 위한 시간으로 사용하려는 사람들의 열망은 가사노동 시간을 줄이는 효과를 낳았다. 구체적으로 2014년 여성의 가사노동 시간은 259분으로 약 4시간 19분이었는데 2004년의 275분(4시간 35분)과 비교하면 16분이 줄어들었다. 이처럼 여성의 노동 시간이 조금씩이지만 줄어 든 대신 남성의 가사노동 시간은 계속 증가하였다. 즉 남성의 가사노동 시간이 2014년에는 2004년보다 12분 증가하였다. 여성의 노동 시간 감소는 남성이 가사를 분담해 줌으로써 많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가사노동 시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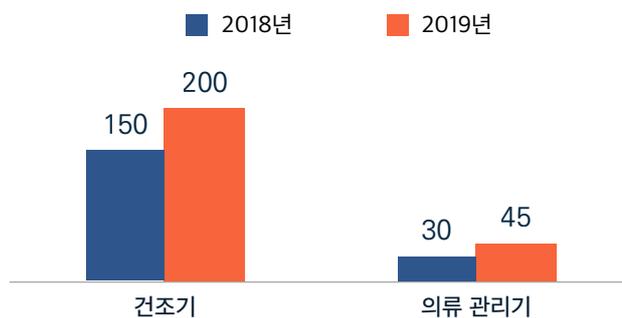


*자료 출처: 통계청, '1999~2014년 가계 생산 위성계정 개발 결과(무급 노동 가치 평가)' 2018.10.8

● 가사노동 절감을 위한 ‘노동가성비 가전 제품’ 판매 급증

- 세탁기와 식기 세척기 등은 여자의 노동 시간을 줄여주었을 뿐만 아니라 노동 강도를 약화시키는데 크게 기여하였다. 최근에는 건조기, 의류관리기 등 가사노동 부담을 줄여주는 이른바 ‘노동가성비 가전 제품’이 여성이 선망하는 제품으로 주목을 받고 있다. 빨래를 널고 말리는 행위를 생략해 주는 건조기는 2018년 150만대에서 2019년 200만대로 판매가 급증하였고, 다림질의 부담을 줄여주는 만드는 의류관리기는 2018년 30만대에서 2019년 45만대로 판매가 무려 50%나 늘어났다

[그림] 노동가성비 가전 제품 판매량 (만 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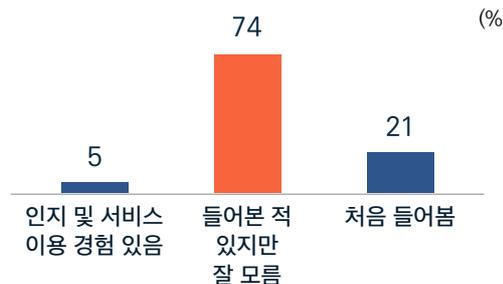


*자료 출처 : 뉴시스, '공기청정기·건조기·스타일러...신가전 전성시대 열렸다', 2019.08.22
https://newsis.com/squ/spe_view/?stid=ST20190823_0000000501&id=NISX20190818_0000743223&cid=16000&scid=spec

4 '가사노동 대행 서비스의 등장(인지도 79%)

- 최근 설거지, 빨래, 청소 등 집안 일을 대신해 주는 가사노동 대행 서비스가 등장하였다. 가사노동 대행 서비스는 힘든 가사노동을 덜어주기 때문에 주목을 받고 있다.
- 가사노동 대행 서비스를 알고 있는 비율은 74%로 상당히 높은 편인데 실제 서비스를 이용해 본 적 있는 비율은 5%로 아직 가사노동 대행 서비스가 일반화되지는 않았다.

[그림] 가사노동 대행 서비스 인지도 및 이용 경험률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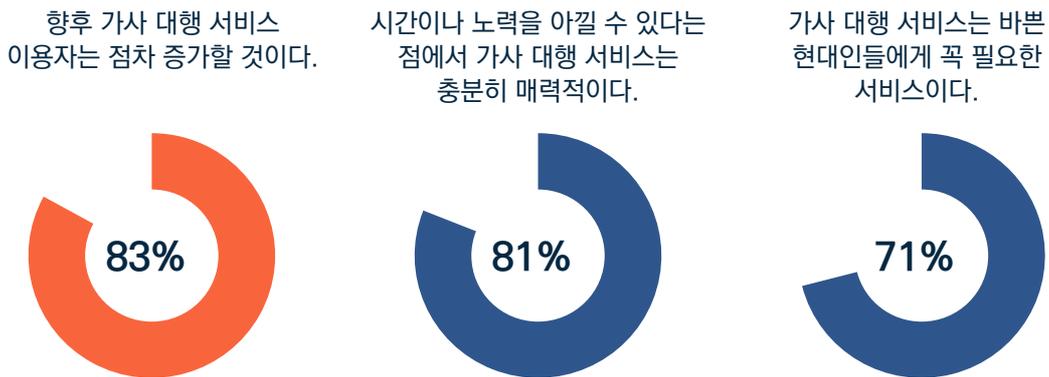


*자료 출처 : 트렌드모니터, '2020 가사노동 및 가사 대행 서비스 관련 인식 조사', 2020.2 (전국 만 19세~59세 남녀 1,000명, 온라인 조사)

● 가사노동 대행 서비스 이용, '증가할 것이다' 83%

- 물론 가사노동이 힘들지만 집안 일을 남에게 의뢰한다는 심리적 부담감이 아직은 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힘든 가사노동에서 벗어나서 자기의 일(직업, 취미, 자기계발 등)을 하고자 욕구가 강한 현대인에게 가사노동 대행 서비스는 매우 매력적(81%)이며 필요한 서비스(71%)라고 생각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 국민은 가사노동 대행 서비스가 앞으로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83%).

[그림] 가사노동 서비스에 대한 전망: 동의율 (%)



*자료 출처: 트렌드모니터, '2020 가사노동 및 가사 대행 서비스 관련 인식 조사', 2020.2 (전국 만 19세~59세 남녀 1,000명, 온라인 조사)

8

새벽배송 이용률, 1년 사이 38% → 67%로 급증

- 가사노동 중 하나인 쇼핑의 수고로움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행동이 온라인 쇼핑인데 그것이 극대화 형태가 새벽배송이다.
- 올해 1월에 조사한 결과를 보면 새벽배송을 이용해 본 경험이 있다는 응답은 3명 중 2명 정도로(67%) 조사 되었다. 1년 전인 2019년 2월에 새벽배송 이용 경험률이 38%인 것과 비교하면 1.8배 정도로 가파르게 성장하였다. 이는 온라인 쇼핑 업계 데이터를 보아도 확인할 수 있는데 업계 추정치에 따르면 1년 사이에 2배 정도로 성장하였다.

[그림] 새벽배송 이용 경험률 (%)



*자료 출처: 트렌드모니터, '새벽배송 서비스 관련 인식조사', 2020.1.20, (전국 만 19세~59세 남녀 1,000명, 온라인 조사)

[그림] 새벽배송 시장 규모 추이 (억 원)



*자료 출처: 한국경제신문, '판 커지는 새벽배송 초저가 전쟁 세포마켓...유통시장 뒤흔들다', 2019.12.13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19122371391>

● 새벽배송은, 가사노동의 부담을 덜어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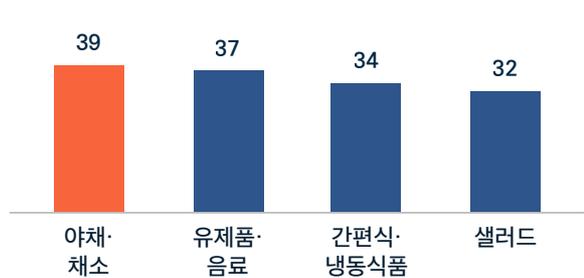
- 새벽배송이 급성장한 이유가 무엇일까? 가사노동을 줄여 주기 때문이다. 온라인 쇼핑은 소비자의 쇼핑 노동을 줄여 주었지만 배송 과정에서 시들거나 상하기 쉬운 야채/채소 등 신선식품은 마트나 시장에서 직접 구매할 수밖에 없었다. 그 수고마저 덜어준 것이 새벽배송의 급 성장 배경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림] 새벽배송 이용 이유(상위 4개, 중복 응답) (%)



*자료 출처 : 트렌드모니터, '새벽배송 서비스 관련 인식조사', 2020.1.20, (새벽배송 이용 경험자 670명, 온라인 조사)

[그림] 새벽배송 구입 의향 제품(상위 4개, 중복 응답)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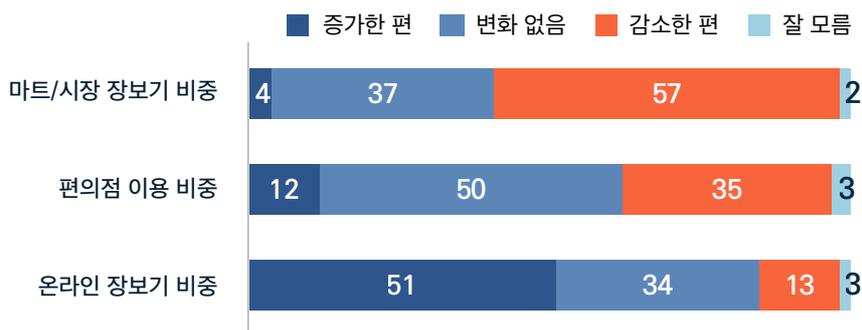


*자료 출처 : 트렌드모니터, '새벽배송 서비스 관련 인식조사', 2020.1.20, (전국 만 19세~59세 남녀 1,000명, 온라인 조사)

● 새벽배송 이용 후, '마트 이용 줄었다' 57%

- 새벽배송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마트 이용이 상당히 줄어들었는데(57%) 편의점 이용 비중까지 줄어들었다(감소 35% > 증가 12%). 새벽배송이 신선식품에만 국한되지 않고 식품 및 음료 전반에 걸쳐 구매 노동을 줄여 주고 있다는 증거이다.

[그림] 새벽배송 이용 전후 유통채널 이용 비중 변화 (%)



*자료 출처 : 트렌드모니터, '새벽배송 서비스 관련 인식조사', 2020.1.20, (새벽배송 이용 경험자 670명, 온라인 조사)

9 시사점

노동의 역사는 역설적이게도 노동 시간을 줄이기 위한 역사였다. 산업혁명 이전 시대에는 일상생활이 곧 노동이었다. 하지만 산업혁명 이후에 공장 노동의 특성상 가정생활 혹은 일상생활과 노동이 분리되고 노동 시간이 정해지게 되었다. 그리고 노동 시간은 점점 짧아지기 시작했다.

가사노동도 마찬가지다. 대가족시대에 가사노동은 정말 큰 노동이었다. 하지만 가족 형태가 소가족으로 바뀌고 자녀의 수가 적어지면서 가사노동도 그만큼 강도가 약해졌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사노동의 가치는 여전히 인정되지 않았다. 가사노동의 어려움을 호소할라치면 '뭐 집안 일하면서 그런다'고 핀잔을 받기 일쑤였다. 그만큼 가사노동은 천대받았다(4쪽).

가사노동을 담당하는 여성에게 가장 놀라운 발명품은 무엇일까? 혹자는 세탁기라고 한다. 무거운 빨랫감을 머리에 이고 냇가에 앉아 빨래하는 것이나 추운 겨울에 수돗가에서 언 손을 불어가면 빨래를 하는 것은 참 힘든 일이다. 그런데 그 일을 버튼 몇 개로 해결해주었으니 세탁기는 참으로 큰 일을 한 발명품이었다. 세탁기 외에도 식기세척기, 청소기 등의 가전 제품은 가사노동을 더 쉽게, 더 편하게 만들어주었다.

가사노동의 부담을 줄여 주는 것은 비단 가전 제품만 있는 것은 아니다. 가사노동 대행, 온라인 쇼핑, 음식 배달 등도 가사노동 시간과 강도를 줄여 준다. 아마도 어른들은 집안일을 남이 해주거나 집에서 밥과 반찬을 하지 않고 사오거나 하는 것을 주부가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 것이라고 못마땅해 할 수도 있다.

하지만 가사노동이 줄어드는 것은 당연한 시대적 흐름이다. 오히려 가사노동이 줄어들어서 여성이 가족에만 붙들려 있는 생활에서 벗어나 자신을 위한 시간을 사용하고 한 개인으로서의 소중한 삶을 가꿔 나갈 수 있는 기회가 된다. 그런데 기왕이면 그 시간을 보람있게 사용한다면 더 가치있는 일이 될 것이다.

교회는 가사노동의 부담이 줄어든 여성에게 더 보람있는 생활을 제안할 수 있다. 교회 내의 어려운 사람을 돌아보거나 지역 사회에 기여하는 활동을 하는 터전을 만들어 줄 수 있다. 교회가 자체적으로 하지 못한다면 지역 교회들끼리 연합하여 지역사회 봉사활동을 전개할 수도 있다. 그래서 소중한 시간을 자신만을 위해 사용하지 않고 이웃을 위해 사용한다면 개인적으로는 보람된 일이고 교회적으로는 교회로서 사명을 다하는 일이 되며 사회적으로는 따뜻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이 될 것이다.

1 최근 언론 보도 통계

코로나19 관련 미국 여론 조사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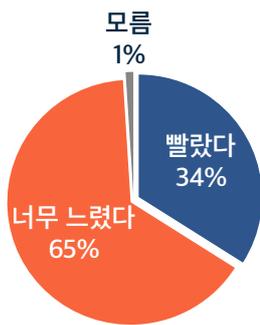
2 언론 보도 및 이슈 큐레이션

● 현재 미국이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와 관련 미국의 조사 통계 자료를 소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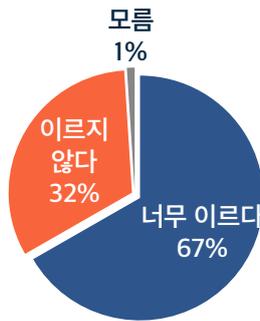
1 코로나19 관련 트럼프 대통령의 대처, 미국인 3명 중 2명(65%)이 '주요 조치가 너무 느렸다'

- 미국 퓨리서치센터(Pew Research Center)가 미국인에게 코로나19가 발병했을 당시 국민에 대한 위협을 해결하기 위한 트럼프 대통령의 주요 조치 속도에 대해 묻은 결과, 65%의 미국인이 '주요 조치가 너무 느렸다'고 응답해 정부의 늦은 대처에 대해 아쉬움을 나타냄
- 또한 주 정부의 공공 활동 제한 해제에 관해서는 66%가 '너무 이르다'고 응답하였는데 이는 미국인 10명 중 7명 이상이 코로나19로 인해 국가가 겪고 있는 상황에 '최악의 상황은 계속 될 것이다'(73%)로 인식하기 때 문인 것으로 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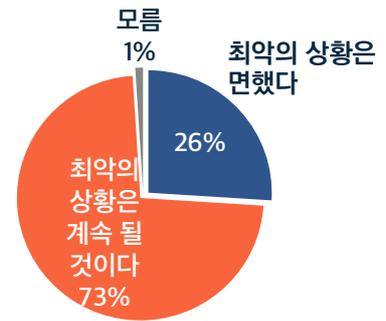
[그림] 코로나19 대응 관련 트럼프 대통령의 주요 조치 평가 (%)



[그림] 주 정부의 공공 활동 제한 해제 평가 (%)



[그림] 코로나19로 국가가 겪고 있는 문제 인식 (%)



*자료 출처 : 퓨리서치센터, 'Most Americans Say Trump was Too slow in Initial response to Coronavirus Threat', 2020.04.16. (미국 전역, 성인 4,917명, 온라인 조사, 2020.04.07-12)

● 코로나19 대응 관련, 트럼프 대통령 평가 : 의료인 · 공무원 · 시민 · 언론 보다 낮아

- 코로나19 사태 대응에 대한 각각 대상에 대한 미국인의 평가를 물어본 결과, '보건 의료 공무원'(79%)이 '잘했다'는 응답이 가장 높았고, 그 밖에 '주 정부 선출 공무원(주지사 등)' 70%, '지방 정부 선출 공무원(시장 등)'(69%), '지역 사회 일반 시민'(63%), '뉴스 미디어'(54%), '트럼프 대통령'(48%) 순으로 나타났는데, 대통령 평가는 절반 이하로 떨어짐

[그림] 코로나19 대응의 각 대상별 '잘했다'*** 비율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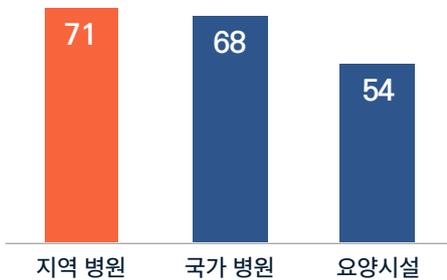
*자료 출처 : 퓨리서치센터, 'COVID-19: Effect on personal life', 2020. 3.30 (미국 전역, 성인 11,537명, 온라인 조사, 2020.03.19-24)

**'잘했다'는 '매우 잘했다+ 잘했다'의 수치임

2 코로나19 관련, 미국인의 의료기관 신뢰도, 한국보다 낮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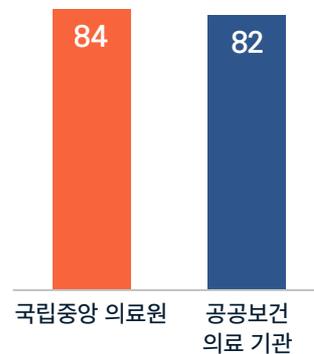
- 의료 관련자들이 코로나19로 인해 중증 환자들을 잘 다룰 수 있을지에 대한 신뢰도를 묻은 결과 '지역 병원 신뢰' 71%, '국가 병원 신뢰' 68%, '요양 시설 신뢰' 54%로 나타남
- 미국인의 의료기관 신뢰도는 한국 경우보다 신뢰도가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남

[그림] 미국인의 의료 관련 기관의 코로나19 환자 치료 신뢰도(매우 신뢰+다소 신뢰) (%)



*자료 출처 : 퓨리서치센터, 'COVID-19: Effect on personal life', 2020. 3.30 (미국 전역, 성인 11,537명, 온라인 조사, 2020.03.19-24)

[그림] 우리나라 공적 의료 기관 신뢰도 (매우 신뢰+다소 신뢰)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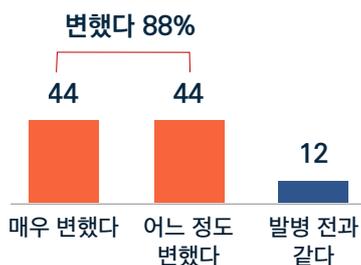


*자료 출처 : 서울대 보건대학원 유명순 교수 연구팀, '코로나19 국민 위험인식조사 3차' 2020.03.31,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 1,000명, 웹 조사, 2020.03.25-28)

3 미국인, 코로나19로 자신의 삶 '바뀌었다' 88%

- 미국인에게 코로나19 바이러스 발병 이후 자신의 삶의 변화를 묻은 결과, 88%가 코로나19로 인해 '자신의 삶이 변했다'고 응답함
- 각 영역에서 개인이 느끼는 불안감의 정도를 묻은 결과,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모임에 가야 할 때 91%, 식당 방문해야 할 때 77%, 선거를 위해 투표 장소에 가야 할 때 66%, 식료품을 사러 마트에 가야 할 때 42%, 가족이나 친구가 집에 방문해야 할 때 38% 등으로 나타남

[그림] 개인의 삶에 코로나19의 영향도 (%)



*자료 출처 : 퓨리서치센터, 'COVID-19: Effect on personal life', 2020. 3.30(미국 성인 11,537명, 온라인 조사, 2020.03.19-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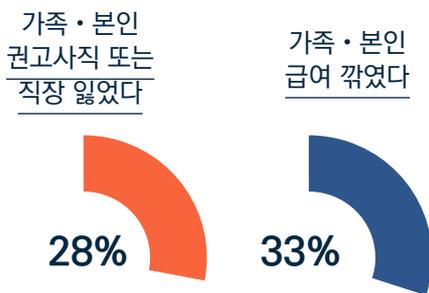
[그림] 코로나19로 인한 개인이 느끼는 각 영역별 '불안하다' 응답률 (%)



● 미국인, 본인·가족 중 권고사직 또는 직장을 잃었다 2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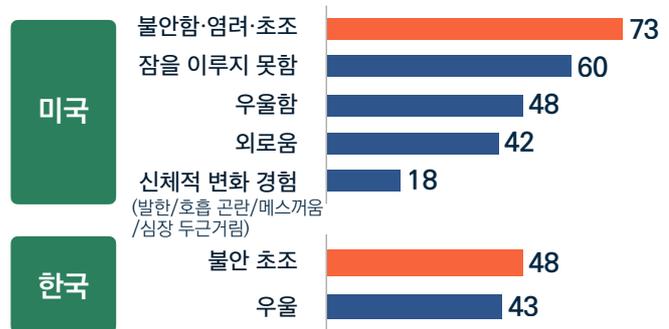
- 미국인들에게 이번 코로나19 사태 이후 본인이나 가족 중에서 해고당했거나 또는 임금이 깎였는지를 질문한 결과 ‘해고 경험’ 28%, ‘임금 삭감 경험’ 33%, 둘 중 하나 이상을 경험한 사람은 43%로 나타남
- 코로나19를 겪고 있는 미국인들에게 지난 일주일간의 심리적 상태를 물어본 결과, 4명 중 3명 가량(73%)이 코로나19로 인해 ‘불안함·염려·초조를 느꼈다’고 응답하였으며 ‘잠을 이루지 못했다’ 60%, ‘우울함을 느꼈다’ 48% 등으로 나타남
- 한·미간 결과를 비교해 보면 한국인이 미국인에 비해 불안·초조·우울함이 상대적으로 덜한 것으로 나타남

[그림] 코로나19 관련 직장 변화 (%)



*자료 출처 : 퓨리서치센터, 'About Half of Lower-Income Americans Report Household Job or Wage Loss Due to COVID-19' 2020. 4.21 (미국 전역, 성인 4,917명, 온라인 조사, 2020.04.7-12)

[그림] 지난 1주간 경험한 심리적/신체적 경험



*자료 출처 : 퓨리서치센터, 'COVID-19: Effect on personal life', 2020. 3.30(미국 전역, 성인 11,537명, 온라인 조사, 2020.03.19-24)

**자료 출처 : 한국트라우마스트레스학회/한국리서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국민 정신 건강 실태 조사, 2020.04.07 (전국 19-70세 성인, 1,014명, 온라인 설문 조사, 2020.03.17-30)

4

미국인, 코로나19 관련 외국 여행객의 미국 입국 금지 '필요하다' 95%

- 코로나19로 각 영역별 필요성을 질문하였는데, '미국에 들어오는 국제 여행객 금지'(95%)가 가장 높게 나타났고, '스포츠/엔터테인먼트 취소' 91%, '유치원~고등학교까지 중단' 90%, '10명 이상 모임 금지' 87% 등으로 나타남

[그림] 코로나19 관련 '필요하다' 응답률(각 영역별) (%)



*자료 출처 : 퓨리서치센터, 'COVID-19: Effect on personal life', 2020. 3.30(미국 전역, 성인 11,537명, 온라인 조사, 2020.03.19-24)

5 미국인, 코로나19로 '온라인·TV 예배 드렸다' 57%

- 코로나19 이전 한 달에 한두 번 이상 교회 예배에 참석한 미국인 중 코로나19 이후 종교에 관해 물어 본 결과, 미국인 절반 이상이 코로나19로 종교 활동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직접 예배 참석을 줄였다' 59%, '온라인·TV 예배를 드렸다' 57%, 코로나19 확산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기도한 적 있다' 55%로 응답함
- 우리나라 개신교인(교회 출석자)은 '온라인·방송 예배드렸다(3/29일 기준) 가 59%로 응답해 미국인과 비슷한 것으로 나타남

[그림] 종교 활동 변화(미국 vs 한국, 교회 출석자 대상)



*자료 출처 : 퓨리서치센터, 'COVID-19: Effect on personal life', 2020. 3.30(미국 전역, 성인 11,537명, 온라인 조사, 2020.03.19-24)

**자료 출처 : 한목함/한기연, '코로나19로 인한 한국 교회 영향도 조사 보고서', 2020.04.09(전국, 만 18세 이상 개신교인 1,000명, 온라인 조사, 2020.04.02-06)

6 언론 보도 기사 및 큐레이션

언론 보도 기사 큐레이션



[일시 휴직, 최악의 상황](#)

중앙일보_2020.04.20.

“그냥 쉽다’ 237만 최대... ‘경제, 외환 위기 뒤 최악”



[세계 경제, 대공황이후 최악! 주요국 경제전망](#)

한국일보_2020.04.14.

“코로나에 한국 22년만에 마이너스 성장... 한국은 그래도 나은편”



[아동음란물 관련 국민인식조사 결과 발표](#)

세계일보_2020.04.22.

“강간보다 가벼운 죄’ 간주 판결... 사법부 ‘눈’부터 바꿔야”



[2019년 군성폭력 실태조사 결과 발표](#)

중앙일보_2020.04.20.

“군대 성희롱 당한 女간부 11%... 女하사가 주로 당했다”



[서울대 합격자 통계](#)

조선일보_2020.04.21

“서울대 합격 30위內 일반고 4곳... 강남·서초 비중 높아져”



[50번째 지구의 날- 환경의 위기](#)

한겨레신문_2020.04.22

“온실가스 배출량 중국>미국>인도>러시아”



[구태 정치 바꾸자! 21대 총선 결과](#)

매일경제_2020.04.17

“초선의원 16년만에 절반 넘어”

스토리가 있는 기사



[몸도 마음도 이제는 치료할 때](#)

조선일보_2020.04.20

“코로나가 우리 몸에 남길 흔적... ‘확찐자’ ‘살천지’ ‘비만희”



[코로나 이후의 세계- 글로벌 전문가 24인 인터뷰](#)

조선일보_2020.04.21

“거대정부의 진격, 악수의 종말... 코로나 이후 달라질 10가지”

역대 주간 리포트 주요 내용

- 제 1호 | 인구 절벽, 그리고 개신교 인구 변화
- 제 2호 | 대한민국은 갈등 공화국(사회적 신뢰도, 갈등지수) | 종교 스윙칭
- 제 3호 | 모바일 시대가 온다(개신교인 미디어 이용 실태) | 청년층 운세보기 | 황혼 이혼
- 제 4호 | 나홀로 Life, 나는 혼자여도 좋다 | 함께 일하고 싶은 리더
- 제 5호 | 다문화 가족, 그들도 우리의 이웃이다(이주 여성 실태) | 북한 비핵화 인식
- 제 6호 | 위기의 크리스천 대학생(대학생 종교 실태) | 불법 촬영(몰카) 실태
- 제 7호 | 하루 13명, 술 때문에 죽는다(음주실태) | 청년 취업 실태
- 제 8호 | 여름휴가, 어떻게 보내십니까(교회 수련회 통계) | 남성 육아 휴직
- 제 9호 | 유튜브 훌릭 | 한일 분쟁
- 제 10호 | 흡연, 성인 남성 하루 100명 죽는다 | 55세 이상 고령층 취업 희망자
- 제 11호 | 크리스천 4명 중 1명, 교회 안 나간다 | 한국인, 정신·심리 관련 조사
- 제 12호 | 북한이탈주민, 연 가구 소득 2,000만 원 미만 40% | 2019 대한민국 영향력 있는 인물 순위
- 제 13호 | 추석, 즐겁지만 여성에게는 힘든 명절, 89% | 2040 아빠 육아경험, 고령화 통계
- 제 14호 | 한국인, 인간관계를 축소하고 있다 | 합계 출산율, 전국 초중생 방과후 학원 이용 실태
- 제 15호 | 한국인 행복도, '돈'에 과도하게 영향받고 있다 | 임금 근로자 연봉 상하위 격차 14.4배
- 제 16호 | 한국인 1일 37명 자살 | 우리나라 기부 참여율 40%(최근 1연간)
- 제 17호 | 장애인, 문화 활동 거의 못하고 있다 | 한국 부자 보고서 분석
- 제 18호 | 장애인 실태 2, '장애인 근로자, 고용 기업의 만족도 높다!' | 미국 크리스천의 담임 목사 인식 조사, 한국 국가 경쟁력 순위
- 제 19호 | 한국 사회 혐오, 심각하다 96% | 100세 시대 인식조사
- 제 20호 | 특별판(1-19호) 종합 정리
- 제 21호 | 개신교인, 전광훈 목사 긍정적 평가 13% | 한국 사회 공정성 평가 조사
- 제 22호 | 당신은 '꼰대' 입니까? | 문재인 대통령 임기 반환점, 주요 여론조사 통계
- 제 23호 | 학벌 중심 사회, 국민 절반 가까이 학력 콤플렉스 '느낀 적 있다' | 평생직장 인식 변화, 우리나라 커피 소비 인식 조사 결과
- 제 24호 | 가족 호칭, '가부장 문화가 반영됐다' 72% | 한국인이 좋아하는 인물편(분야별)
- 제 25호 | 한국인의 결혼·가정관 빠르게 변하고 있다 | 한국인이 좋아하는 브랜드(일반 국민 vs 개신교인 비교), 우리 국민 절반은 '나는 가난하다' 생각한다)
- 제 26호 | 개취를 아십니까? | 전세계 기독 청년의 교회 인식 조사, 한국인의 기대 수명
- 제 27호 | 한국인의 기부, 불투명성이 발목 잡는다! | 2019 초중등 진로 교육 현황 조사 결과, 1인당 노동소득과 소비 간 비교
- 제 28호 | 2019 [넘버즈] Top 7
- 제 29호 | 2020년 1인 가구 대세 시대 | 미국 크리스천, 교회 출석 이유, '목사의 설교 내용' 절대적임, 한국 사회, 빈익빈 부익부 현상 뚜렷하게 나타남
- 제 30호 | 50년 뒤 한국, '국민 2명 중 1명이 노인!' | 한국인 새해 경기 및 살림살이 전망, 작년 전국시도지사 직무 평가 결과

역대 주간 리포트 주요 내용

- 31호 | 어려울 때 가장 먼저 찾는 대상, '가족' | 2020 새해 목표, 성격 변화
- 32호 | 이제는 착한 소비의 시대! | 2019년 한국 파송 선교사 현황, 한국인 4명 중 1명 '사소한 일에 화가 난다'
- 33호 | 빅데이터로 본 2019 한국 교회 | 10대 청소년, 관심·흥미 주제 찾을 때, 유튜브가 압도적, 한국인 5명 중 1명 '종종 소외감을 느낀다'
- 34호 | 생활의 기쁨, 가족보다 '반려동물'에서 더 얻는다! | 코로나19 사태가 가져온 일상의 변화
- 35호 | 외로운 대한민국, 한국인 고독 지수 78점 | 밀레니얼 세대 직장인 분석
- 36호 | 코로나19 관련 개신교인 여론조사 결과 분석 | 코로나19 관련 국내 주요 신학교 권고의 글 모음
- 37호 | 가짜 뉴스, 심각하다 89% | 총선 40일 현재 국민 여론
- 38호 | 한국인, 부자가 가난한 자보다 오래 산다! | 우리나라 헌혈 통계 분석, 코로나19 이후 일상의 변화들
- 39호 | 한국인 정치 만족도 16% | 우리나라 대학생 81%, 고등학교는 사활을 건 전장, 미혼자, '주례 없는 결혼식' 선호도 67%
- 40호 | 악플도 범죄다, 65% | 코로나19 이후 마스크 5부제 찬성 68%
- 41호 | 성인 2명 중 1명, 사이버 폭력 '피해 경험 있다' | 우리 국민 필수와 선택
- 42호 | '코로나 19의 한국 교회 영향도 조사' 결과
- 43호 | 코로나19 이후 한국 사회 신뢰도 올랐다! | 40년간 국내 주요 물품/서비스 가격 변화, 한국인의 의심병

목회데이터연구소

서울시 강남구 역삼로8길 17 현빌딩 2층

미션

우리는 세상과 교회를 이루고 있는 이슈, 사고방식, 그리고 트렌드를 한국 교회 목회자와 리더십에게 알리는 '정치 중립/가치 중립의 공정한 팩트 탱크'로서, 사회 여론 조사, 공공 통계 등 데이터 기반의 통계 자료를 제공합니다.

우리는 교회-사회의 대화와 소통을 풍요롭게 하고 더욱 견고하고 온전한 의사 결정을 위해 '사실'에 입각한 자료를 제공합니다.

후원

후원 교회 | 거룩한빛광성교회 고현교회 노량진교회 당진동일교회 백주년기념교회 서현교회 서울서문교회 성락성결교회 소망교회 송학대교회 수원중앙침례교회 여의도순복음교회 오륜교회 이룸교회 일산광림교회 주안장로교회 진주삼일교회 창동염광교회 한소망교회

후원 기관 | 고려신학대학원 광주지식포럼 (사)사단법인아시아미션 (사)새길과새일 알파코리아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통합) 미래목회와말씀연구원 장로회신학대학교 한목회 제이제이경제연구소 지앤컴리서치 한국교회탐구센터 한국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 한빛누리 (재)CBS CCC 사역연구소

후원 기업 | 동광에스아이 (주)마뜨 (주)바이텍테크놀로지 (주)셀파 C&C (주)시스코프 (주)예종세무법인 (주)참튼건강과학 (주)트로인 (주)하츠 한국피스메이커

후원 개인 | 김성렬 김성은 김재욱 남성태 류지성 박우빈 반기민 배수정 안태근 이인성 이춘봉 이훈희 조창오 최은아(가나다순)

후원 방법

본 연구소는 주간리포트를 제작하여 한국 교회와 한국 사회에 무료로 제공함으로써 100% 후원을 통해 운영됩니다. 이 사역에 동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현재 후원 교회, 기관, 개인은 홈페이지에서 게시하고 있습니다).

문의 : 02-322-0726, 계좌 안내 : 하나은행 203-910046-18604(목회데이터연구소)
후원 링크 → [클릭 하기](#)

섬기는 이들

김지철 목사 | 운영위원장 (미래목회와말씀연구원 이사장)

류영모 목사 | 후원이사회 회장(한소망교회 담임목사)

신원하 교수 | 연구자문위원장(고려신학대학원 원장)

만든 이들

지용근 | 목회데이터연구소 대표 | ykji@mhdata.or.kr

김진양 | 목회데이터연구소 부대표 | marpro@mhdata.or.kr

김준영 | 목회데이터연구소 연구원 | jy0113@mhdata.or.kr